

尹, 영국 국민방문... 공급망 재편 등 FTA 개선방안 논의

23일까지 3박4일 일정 출국
英 시장 진출 韓기업 기반확대 구상
영국 의회서 영어연설로 비전 제시
수낙 총리와 한-영 정상회담 개최

윤석열 대통령이 20일부터 23일까지 3박 4일간 영국을 국민방문해 공급망·기술 협력 강화 등 신시장 확보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김건희 여사와 함께 영국 순방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장호진 외교부 1차관, 필립 베르투 주한프랑스 대사, 게리스 위어 주한영국 대사대리,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의 배웅을 받고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랐다.

윤 대통령의 이번 국민방문은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즉위 후 첫 국민 초청이자,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국민방문을 통해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방안을 논의해 브렉시트 이후 공급망을 재편하



영국을 국민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 탑승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고 있는 영국 시장에 한국 기업의 진출 기반을 넓히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6위, 유럽 2위의 경제 대국이자 반도체·인공지능(AI)·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 원천기술을 보유한 영국과 협력 수준을 높여 신시장을 확보하고 공급망·기술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 부부는 20일(현지시간) 늦

은 오후에 영국 런던에 도착해 동포간담회를 시작으로 첫 공식 일정을 소화한다.

21일에는 이번 영국방문의 하이라이트인 국민 일정이 공식환영식부터 시작된다. 윌리엄 왕세자비 부부가 윤 대통령 부부의 숙소까지 영접하러 온 뒤, 왕세자비 부부의 안내로 공식환영식장인 호스가드(Horse Guards) 광장까지 함께 이동한다.

최고 존경의 의미인 예포 41발 발사와 왕실 근위대를 사열하고, 윤 대통령은 환영 오찬에 참석하기 위해 찰스 3세 국왕과 함께 버킹엄궁까지 마차 행진을 한다.

같은 날 오후 윤 대통령은 영국 의회에서 영어 연설을 통해 양국 관계 성장의 역사를 돌아보고, 양국이 함께 지향할 미래 비전과 협력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이와 관련 이도운 대변인은 “현지 언어로 연설하는 것은 정치인뿐 아니라 그 나라 국민 마음에 다가가는 시도”라고 부연했다.

다음날인 22일에는 영국 기업인 200여명이 참석하는 ‘한영 비즈니스 포럼’을 비롯해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 의정회담 등을 소화한다.

윤 대통령은 한영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우리의 주요 교역, 투자 대상국이자 전략적 통상 파트너인 영국과 비즈니스 기회 창출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동행사 계기에 양국 기업과 기관들은 첨단산업, 에너지, 금융 등의 분야에서 수십건의 협력양해각서(MOU)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영국왕립학회에서 개최하는 ‘한영 최고과학자 과학기술 미래포럼’에 참석해 인류 공영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연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같은 날 오후 다우닝가 10번지에 위치한 총리 관저에서 수낙 총리와 한영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디지털·AI, 사이버안보, 원전, 방산, 바이오, 우주, 반도체, 해상풍력, 청정에너지 등 분야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논의하고, 양국 미래 협력 방향을 담은 ‘한영 어코드’ 문건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이번 국민방문에 동행한 경제사절단과 함께 길드홀에서 열리는 런던금융특구 시장 주최 만찬에 참석한다.

국민방문 마지막 날인 23일에 윤 대통령은 ‘처칠 위 룸’을 방문한 후 다시 버킹엄궁으로 이동해 찰스 국왕과 작별 인사를 통해 영국의 모든 국민 일정을 마무리하고,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위해 곧바로 프랑스로 이동한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T1, 롤드컵 우승... ‘조력자’ SKT 눈길

통산 4번째... 7년만에 되찾아
‘페이커’ 이상혁 발굴, 잇단 우승

SKT T1이 다시 롤드컵을 거머쥐면서 꾸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은 SK텔레콤의 역할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SK텔레콤도 T1 우승을 기념해 프로모션을 마련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SKT T1이 19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2023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롤드컵)’ 결승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다시 세계 최고 자리를 탈환했다. 2016년 이후 7년만, 통산 4번째 우승이다.

T1은 SK텔레콤이 운영하는 e스포츠 팀으로, 2004년 e스포츠 태동기 창단해 e스포츠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 특히 2013년에는 자타공인 최고 실력을 갖춘 ‘페이커’ 이상혁 선수를 발굴해 연달아 롤드컵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SKT는 T1을 다방면으로 지원해왔다. 국내 처음으로 유망주 시스템을 도입해 ‘T1 루키즈’를 운영하며 이번 롤드



지난 19일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3 리그 오브 레전드(LoL·롤)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한 T1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컵 우승 공신인 ‘제우스’ 최우제 선수와 ‘오너’ 문현준 선수, ‘구마유시’ 이민형 선수 등을 육성해냈다.

이를 기반으로 T1은 2019년 세계적인 기업 캠페인에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며 글로벌 e스포츠 전문 기업으로 도약했다. 2021년 인적 분할 후 SK스퀘어에 포트폴리오사로 재편됐다.

SKT는 e스포츠 발전사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다. 2005년부터 한국 e스포츠협회 회장사로 폭넓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SKT는 T1을 분리한 후에도 T1뿐 아니라 e스포츠를 후원하고 있다. ‘아마추어 스포츠 후원 및 미래지향형 스포츠 후원’이란 전략 하에 한국 e스포츠 협회와 e스포츠 국가대표팀을 도왔다.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롤 종목 금메달을 획득한 데에도 SKT 역할이 컸다는 평가다.

김재용 기자 juk@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中企, 비용문제 등에 DX 도입 어려워

>> 1면 ‘생존·ESG경영 위한’서 계속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마스크 등 위생용품 생산량을 단시간에 대폭 늘릴 수 있었던 데에도 이 사업 영향이 컸다. 종이를 없애는 ‘페이퍼리스’ 방식은 이미 기업 전반에 당연한 문화로 자리잡았고, 조만간 웨어러블 로봇을 통해 업무 위험성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DX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이다. 당장 적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비용과 난이도 등 어려움으로 DX를 시도하지 못하거나 실패했다. 최근 ‘정부24’ 앱 다운로드나 공공 앱 실패 등에서 보이듯 정부도 조직 경직성과 전문성 미흡 등으로 DX에 그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는 22일 오후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뉴테크놀로지포럼 ‘DX - 혁신의 트리거’를 열고 DX 현황과 성과, 한계와 과제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하토가이 준 한국후지필름BI 대표가 DX 여정을 소개하는 기조연설을 맡았고, 이진복 MS 상무가 생성형 AI로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과 사례를 공유하는 강연을 준비했다. 이어서 오경석 영남대학교 교수가 정부의 DX 한계와 극복 방안, 김상윤 중앙대학교 교수가 DX 시대에 새로운 경쟁력을 설명한다.

김재용 기자 juk@

내년 연간성장률 2.0%, 소폭 상승 전망

>> 1면 ‘내년 반도체 업황개선’서 계속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불확실성 요인
환율, 달러당 1280원 내외 예상

반도체를 비롯해, 정보통신기기(12.7%), 바이오헬스(4.6%) 등 IT신산업 수출 증가가 우리 경제의 수출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되나 전기차 보조금 축소 영향으로 이차전지 수출은 -2.6%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이밖에 일반기계(1.0%), 자동차(2.0%)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조선(10.2%)은 고가 선박 인도 증가로 두자릿수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신항구 수요 증가 등으로 철강(1.4%), 섬유(2.0%), 정유(1.0%) 수출 증가가 예상되나, 석유화학(-0.5%)의 경우 단가 하락 영향으로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수출 대상국 중 미국, 유럽 수요는 인프라 구축과 공급망 내재화 등 영향으로 소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의 경우는 경기 하방압력으로 대부분 산업에서 수출이 감소할 전망이다.

◆성장률 2.0%, 민간소비 1.9% 증가
내년 우리나라 연간 성장률은 2.0%, 민간소비는 전년 대비 1.9%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 경제는 IT경기의 안전한 회복세에 힘입은 수출과 설비투자 증가세 전환에도 불구하고 고물가·고금리의 부정적 영향이 본격화됨에 따른 소비 성장세 둔화와 건설투자 위축으로 완만한 성장이 예상된다.

대외적 불확실성 요인으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진정 여부와 주요국들의 고금리 지속에 따른 금융 부문의 불안



부산 남구 신산대 부두에서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정성, 전쟁 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불확실성, 반도체 경기의 회복 속도,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문제의 현실화가 꼽힌다.

민간소비는 고금리와 높은 가계부채로 인해 이자부담 확대, 금융 부문과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 고물가에 따른 구매력 약화 등이 성장을 제약할 것으로 봤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83달러, 환율은 달러당 1280원 내외로 예상됐다. 유가는 원유 생산국의 공급 증가 가능성이 가격 상승을 제한하고,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급 우려가 완화되면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이같은 전망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제한적 성장이 이뤄지고 세계교역이 전년(2023년) 침체에 따른 기저효과로 반등한다는 전제에 따른 것으로 대내외 여건에 따른 불확실성은 존재한다.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이재윤 실장은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추세에 따른 고기능 제품의 수요 확대와 관련 인프라 투자도 양호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통화 긴축 기조와 국제 정세 불확실성은 수요 회복을 제한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